

4월 둘째 주 기사 스크랩

[주요 뉴스]



[방정환 손 안의 아세안12] 한국 의료와 인도네시아 동물백신이 만난다면? (p. 1-2)
(<http://www.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3531>)



코로나 19 대응 인도네시아 수출입 규제 완화한다 (p. 3)
(<http://www.koreapo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947>)



인도네시아, 화장품 등 물품·산업에 수입 규제 완화 (p. 4-5)
(<http://www.beautynury.com/news/view/88212/cat/10/page/1>)



[ASEAN 칼럼] 아세안, 한국건설 최대 시장 훌쩍 "이제 인프라협력"
(p. 6-10)
(<http://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3593>)

[방정환 손 안의 아세안12] 한국 의료와 인도네시아 동물백신이 만나다면?

방정환 기자 highnoon@aseanexpress.co.kr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 축산학부- 축산 기업 한국 파트너들과 교류·협력 희망



▲ 인도네시아 반둥시 인근에 위치한 국립 빠자자란대학교(Padjadjaran University) 축산학부. 사진=방정환

최초 확진 환자 발생 이후 두 달 넘게 지속된 국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3월 중순부터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역전한 흐름이 보름 이상 계속되면서 희망을 키웠지만, 며칠 간 두 자리대로 떨어진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을 돌파하는 등 아직 마음을 놓기에는 이른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구촌 대부분 지역의 사정은 더욱 긴박합니다. 특히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이란과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미국 등은 사실상 정상적인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정도입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코로나19가 심각성을 더하기는 인도네시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2월말까지만 해도 코로나19 '청정 국가' 자부심을 드러냈지만, 3월 2일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래 감염 사례가 급증해 왔기 때문입니다.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3월 30일 기준 인도네시아에는 총 1414명의 확진자와 122명의 사망자가 보고됐습니다.

대통령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거듭 당부할 만큼 위기감이 커지며 밀집 예배와 대규모 인구 이동이 수반되는 4월 하순 라마단(Ramadan) 금식기간 및 5월 하순 르바란(Lebaran) 명절에 앞서 핵심 발병 지역을 봉쇄해야 한다는 과학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되면서 현지에서는 한국의 모범 사례를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시름하는 대다수 국가들처럼, 한국 정부의 신속한 대응과 투명한 정보 공개, 수준 높은 방역 시스템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범위한 진단 검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에 비례해 전세계의 감탄을 이끌어낸 한국의 선진 의료 체계도 주목받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코로나19 감염처럼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국의 동물 백신 분야 역시 인도네시아 사회의 남다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2억 600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인구 수만큼이나 인도네시아는 손꼽히는 가축자원 대국 중 하나입니다. 무슬림(이슬람 신자)이 국민의 약 85%를 차지하는 특성상 돼지보다는 닭, 오리 등 가금류와 양 등이 가축 사육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 최대 축산 기업인 잡파 컴피드 인도네시아(PT. Japfa Comfeed Indonesia)의 자카르타 본사, 사진=방정환

문제는 조류를 포함한 동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의학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시장 규모에 발맞춰 발달하지 못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물 백신의 양적, 질적 성장이 정체되면서 연매출 3조 원에 달하는 상장기업조차 기술력 부족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조류 독감 등 가축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동물과 인간 모두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 축산학부 관계자, 축산 기업 등은 한국 파트너들과 교류·협력에 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한국 대학 및 기업들의 앞선 기술과 축적된 노하우를 들여와 현지 환경에 맞게 적용함으로써 동물 백신 분야의 전반적인 수준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는 해외 진출을 고민하는 국내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위상을 뽐낸 한국의 의료 역량이 인도네시아 동물 백신 시장으로도 뻗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코로나 19 대응 인도네시아 수출입 규제 완화한다

피터조 기자 승인 2020.04.07 13:53

||인도네시아 정부, 긴급 대응 물품 공급 확보 위해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 마련
||각종 원부자재, 의료기기, 소비재 등 현지 바이어 수입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

[코리아포스트 한글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활동이 둔화되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기부양 패키지를 수립해 공표하고 있으며, 이 중 3월 중순에 발표된 2차 경기 부양 패키지에는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 완화 대상 품목은 임산물, 원예작물, 의료용품, 생활소비재 일부 품목 등임.

현재 코로나 19로 중국발 원부자재 및 농산품의 유입이 급감하면서 원부자재 단가 상승 및 일부 품목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해당 정책은 코로나19 피해 산업 지원에 필요한 정책이다.



자료: CNN Indonesia =코로나19 병상 확인 중인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아울러 재난방지청과 관세청에서는 3월 20일 경에 코로나19 대응 물품에 대한 수입세 면제 제도를 발표했으며, 해당 수입세는 부가가치세, 특소세, 선납법인세(PPh22) 등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물품에는 의료용품, 의료기기, 마스크, 손소독제 등이 포함되며 해당 제도는 중앙 정부, 정부기관, 비영리단체, 개인 및 기업 등이 활용 가능하다.

조코위 대통령은 3월 30일 화상회의를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후 개인보호장비(ADP, Alat Pelindung Diri) 생산이 감소하는 상황인 바 해당 제품의 원부자재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요청을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개인보호장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들의 원부자재 수입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인도네시아에는 28개의 ADP 생산업체가 존재하며, 2020년 5월까지 약 300만 개의 ADP가 필요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등 물품·산업에 수입 규제 완화

백승연 기자 | 입력시간 : 2020-04-08 05:38 최종수정: 2020-04-08 06:13

대응 물품 확보 위해 선적전 검사 면제, 조세 감면법 등 시행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긴급 대응 물품 확보를 위해 의료용 마스크 등 특정 제품에 대한 선적전 검사를 면제, 화장품 등 업종에는 조세 감면법을 시행하는 등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을 실시한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에 발표한 '코로나 19 대응 인도네시아 수출입 규제 완화한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원부자재 단가 상승 및 일부 품목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을 포함한 2차 경기 부양 패키지를 지난 3월 발표했다.

수출입 규제 완화 정책을 통해 생활소비재·의료용품·원예작물 등의 일부 품목을 대상으로 수입 자재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통관 간소화 등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그중 특정 제품 수입 등에 대한 개정을 살펴보면 생활소비재 등 특정 HS Code에 대해 선적전 검사 면제가 시행되며 늦어도 오는 6월 30일까지 선적된 품목에 적용된다.

대상 품목으로는 △소독 기능 여부 불문한 탈취제 △화장품·탈취제 성분이 포함된 종이·티슈 △의료용 마스크 △생리대 △기저귀 및 일회용 섬유 △비누 함유 여부 불문한 방부제 △합성섬유로 제작된 압박 스타킹 △의료용 방호복 △화학·방사선 보호 의복 △수술복 △위생 타월 등이다.

또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업종에 관해서는 조세 감면법을 시행한다. 수입 시 특정 업종에 한해 선납법인세(PPh22) 면세가 적용돼 통관이 가능하도록 허가해준다는 것이다. 특히 원활한 원부자재 공급이 필요한 제조업에 조세 감면이 실시된다.

면세 대상은 화장품·의약품·화학·고무·섬유 등 102개 업종으로 선납법인세 면제뿐만 아니라 월 선납법인세(PPh 25) 감면 및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하다.

다만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선납법인세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할 세무서로부터 발급 받은 면세확인서를 통관 시 제출해야 면세가 적용된다. 매 수입건별로 확인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발급일로부터 9월 말까지 유효하다.

KOTRA 자카르타무역관은 “국내 진출 기업의 경우 업종 및 취급 제품을 확인해 규정별 속지를 통해 이에 부합한 인센티브 신청으로 세제 혜택 및 통관 간소화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인도네시아로 해당 제품을 수출할 시 한국의 긴급 물품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용품 및 생활소비재 등을 선발해 시장을 타깃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SEAN 칼럼] 아세안, 한국건설 최대 시장 훌쩍 "이제 인프라협력"

박명기 기자 highnoon@aseanexpress.co.kr

최근 5년간 누적 수주액 베트남 1위...인프라 협력과 스마트시티로 점프업 새 기회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



필리핀 마리스 댐



인도네시아 바탐 공항



말레이시아 페낭 대교

▲ 한국의 해외 건설 현장. 출처=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사이버 박물관

한국 해외건설은 196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55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누적 수주액은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약 8300억달러(약 1007조 6200억 원)를 기록했다.

중동 지역이 약 4300억달러(약 522조 200억 원)로 단연 1위다. 아세안은 중동의 40%에 조금 못 미치는 1660억 달러(약 201조 5240억 원)다.

최근 들어 아세안 지역은 크게 약진하고 있다. 줄곧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던 중동 지역이 불안정한 유가 등의 원인으로 주춤하는 사이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

■ 아세안, 신남방정책 등에 힘입어 2018년부터 중동 추월

아세안 지역이 높은 경제성장 및 풍부한 인프라 수요와 신남방정책 등에 힘입어 2018년부터 중동을 추월했다. 2018년 아세안 지역에서의 수주 실적은 119억 달러(14조 4466억 원)로 중동 지역의 92억 달러(약 11조 1688억 원)를 넘어섰고, 2019년에도 역시 아세안 지역 80억달러(약 9조 7120억 원), 중동 지역 47억 달러(5조 7058억 원)로 아세안 지역이 우위를 유지하였다.

또한, 2019년 전체 해외 수주액, 중동 지역 수주액이 10년 전과 비교할 때 각각 크게 감소한 반면, 아세안 지역은 오히려 45.9% 증가하였다. 이제는 아세안 지역이 우리나라 해외건설의 최대 시장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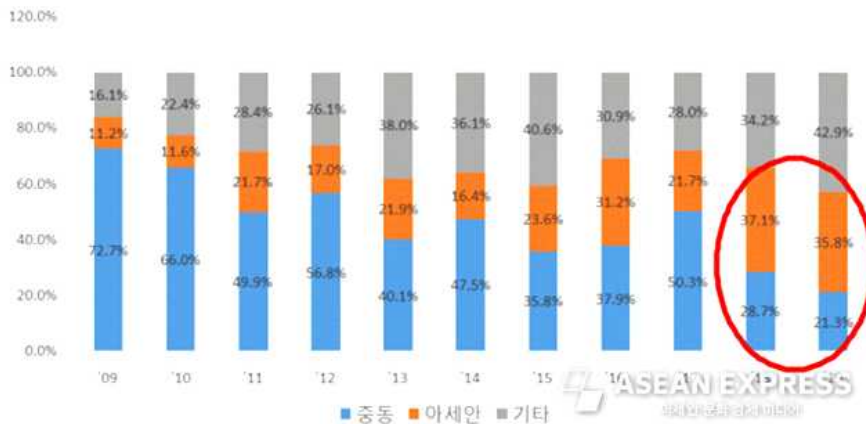
2019년 아세안 지역에서의 수주실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국가별로 분석해 보면, 수주 금액으로는 인도네시아가 37억 달러(4조 4918억 원)로 단연 1위를 기록하였고, 베트남(16억 달러-약 1조 9424억 원), 싱가포르(13억 달러-약 1조 5782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2018년 대비 2019년 수주액 증가율은 라오스(1259.9%), 인도네시아(326.7%), 미얀마(115.6%) 등이 높게 나타났다. 수주 건수 기준으로 보면 베트남이 123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필리핀(24건), 인도네시아(21건)가 2, 3위에 자리하였다.

1965년 이후 누적 수주액은 싱가포르가 430억 달러(약 52조 2020억 원)로 가장 컸으며, 베트남이 406억 달러(49조 2884억 원), 인도네시아가 212억 달러(25조 7368억 원)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최근 5년간의 누적 수주액만 놓고 보면 베트남 140억 달러(약 16조 9960억 원), 싱가포르 101억 달러(약 12조 2614억 원), 인도네시아 72억 달러(약 8조 7408억 원)로 1, 2위가 바뀌었다. 5년 단위 수주금액 합계액의 증가율(2010년~2014년 합계액 대비 2015년~2019년 합계액)로 보면 브루나이(322.3%), 인도네시아(19.3%), 태국(14.5%) 등이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아세안-중동 연간 수주금액 비중비교



아세안 지역에서의 수주 실적을 공종별로 분석해 보면, 2019년 플랜트가 43억 달러(약 5조 2202억 원), 토목이 23억 달러(약 2조 7922억 원), 건축이 9억 달러(1조 926억 원)를 기록하였다.

최근 10년간의 공종별 수주 추이를 보면, 전체 아세안 지역 수주 실적에서 차지하는 플랜트의 비중은 50%~60% 수준에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토목의 비중 역시 20%~30%대에서 완만한 상승세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건축 분야는 2010~2014년 기간에 매년 2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던 것이 2015년 이후에 들어서는 10%대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11.8%로 감소하였다. 전기, 통신, 용역 분야는 금액이 크지 않아 등락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최근 5년간의 수주액과 이전 5년간의 수주액을 비교해 보면 전기 분야는 196.5% 증가하였고, 통신 분야는 43.8% 감소하였다. 용역 분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 한-아세안 인프라의 중요성 - 왜 인프라협력인가?

인프라 건설을 구시대적 정책이며 지양해야 할 방향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그 논리는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에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프라 개발의 거시적, 경제적 효과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순간적인 경기부양 효과에 그치지 않고 물류, 관광, 통신, 각종 서비스업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강력한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 전체를 선순환시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프라 개발이 거시적, 경제적 효과뿐 아닌 가장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는 복지의 기능도 수행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순간을 물, 교통, 전력, 주택 등 인프라에 의지하고 살아간다.

또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건설업을 통해 모든 업종으로 생산유발효과를 발생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많은 가정의 수입 기반이 된다. 또한 최근의 정보통신기술과 결합한 인프라 구축은 스마트시티, 스마트홈 등 새로운 생활 방식을 이끌고 있으며, 사람들은 노동시간을 대폭 줄여 더욱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임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투자이며, 우리나라가 아세안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번영하기 위한 투자임과 동시에 한국 사람들과 아세안 사람들이 교류하고 서로 어울려 살아가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 한국 세계 6위 발돋움 '건설 강국'...아세안 '인프라 동반자' 역량 갖춰

한국은 인프라 개발의 효과를 직접 경험했고 잘 알고 있다. 지난날 전쟁이 남긴 폐허 속에서 도로, 주택, 도로, 철도, 수자원, 전력 등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며 경제 재건의 토대를 만들고 국민들의 삶을 개선해 왔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도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세계 건설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이래 현재까지 세계 곳곳에 수많은 인프라를 건설해 오며 세계 6위의 건설 강국으로 발돋움 했다.

한국의 해외건설은 그간 고속도로, 고속철도, 공항, 발전 플랜트, 도시개발, 주택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특유의 근면 성실, 건설 기술력, 그리고 철저한 공기 준수를 통해 많은 성과를 이룩하며 세계 각지에서 인정을 받았다.

또한 한국의 건설산업은 오랫동안 구축해온 신뢰성에 덧붙여 AI, 드론 등을 활용한 건설자 동화, 초장대 교량, 초고층 빌딩 등 메가스트럭처 시공 기술 등 다른 국가들이 하기 힘든 새로운 기술까지 확보하였다. 우리의 건설산업은 아세안 인프라 사업의 동반자가 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춘 것이다.

앞서 언급한 1965년 대한민국 해외건설의 최초 사업은 바로 아세안 국가인 태국의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다. 이를 시작으로 필리핀 마리스 댐, 인도네시아 바탐 공항, 말레이시아 페낭 대교, 싱가포르 마리나 센터, 베트남 다낭시 다퓌 국제신도시 등 눈부신 성과들과 함께 그동안 한국은 아세안 개별 국가들의 사회 기반 시설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 싱가포르 마리나 센터 다낭 다퓌 국제신도시

2016년 아세안 회원국 간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MPAC) 2025'가 발표되었다. MPAC 2025에서는 연계성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 인프라 구축이라고 지적하며 최우선 전략으로 꼽고 있다.

그 연장선 상에서 아세안 사무국은 2019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40건(우선 순위 사업 19건, 잠재적 사업 21건)을 발표한 바 있다.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교통시설 뿐 아니라 전력, 통신에 이르기까지 아세안 회원국간 연계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계성 프로젝트들은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아세안이라는 큰 틀에서 추진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특정 국가만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세안의 연계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아세안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만큼 중요성은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 스마트시티,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 한국 찰떡 파트너 인정

아세안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또 한가지 분야는 스마트시티다. 아세안의 도시들이 발전 해감에 따라 급속한 도시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세 먼지, 수질 오염, 교통 체증, 전력 부족, 열악한 도시민 주거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가 아세안의 큰 고민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아세안은 이러한 도시 문제를 스마트시티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아세안은 ASCN(ASEAN Smart City Network)를 조직하여 서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역외 국가들에게 협력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축적된 도시개발 경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아세안 국가들에게 좋은 사업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앞으로의 한-아세안 인프라 협력은 각각의 아세안 회원국과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뿐 아니라 아세안 전체 차원에서 기획되고 지원이 이루어지는 아세안 프로젝트가 많은 중요성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도 한-아세안 인프라 장관회의,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 등 아세안과의 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세안 측으로부터 많은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다.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인 에코델타시티. 사진=부산시청

한 가지 사례로, 2019년 제1차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에서 우리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협력 프로그램인 K-City Network를 아세안 장관들에게 제안했다. 최근 이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싱가포르를 제외한 아세안 9개국이 총 36건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앞으로 우리와 아세안의 인프라 협력이 결실을 맺어 아세안의 연계성과 아세안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 나아가서 아세안 사람들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다면 신남방정책이 추구하는 사람 중심의 상생 번영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차상헌 국토교통관